

농촌지역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을 중심으로*

정재훈** · 권호인***

초 록

청소년 자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가족 결손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가족 결손이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가족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의 가족 구성이 자살행동과 위험요인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1,139명으로 이들의 가족 결손, 형제자매 유무, 가족과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 폭력 가해와 피해, 우울감과 자살 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 결손이 있는 청소년은 가족 결손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 가족의 일탈행동을 높게 보고했으나 자살 행동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은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이 높고 자살 행동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우울감, 가족과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 형제자매 유무는 자살행동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또한 형제자매 유무는 우울감, 지역사회 유해환경, 가족과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 폭력 피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살 행동을 조절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농촌지역 청소년에게 있어서 형제자매가 자살 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감과 같은 개인 요인 뿐 아니라 또래 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청소년 자살행동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살 행동, 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우울감, 농촌 지역 청소년

* 이 논문은 정재훈의 2016년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신저자, hikwon14@jj.ac.kr

I. 서 론

자살은 2009년도 이후 국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2015). 최근 청소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표본의 30%로 보고되는 등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특히 농촌지역의 자살률은 도시지역보다 높다고 보고되며, 농업 종사자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수, 2006). 농촌 지역 자살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노인층에 집중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도시지역 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정진, 윤명숙, 2008). 자살은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회 현상임을 감안 할 때,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만석, 김명식, 권호인, 2015).

그동안 청소년 자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정신 장애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었다(Hawton, Saunders & O'Connor, 2012). 이에 따라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우울, 절망, 자존감 등의 변인이 주목을 받아왔다(이은숙, 2007; 강희양, 양경화, 2013).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대한 개인적 특성 연구는 중요한 위험 요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 바 있으나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Nock, 2014). 청소년의 자살은 단일한 위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 가족, 사회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더욱이 개인 요인(예; 우울이나 정신장애), 사회적 요인(예; 가족과 또래), 환경적 요인(예; 학교, 지역 사회)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복합적인 현상인 자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Davis와 Cicchetti(2004)는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를 체계 이론의 맥락 하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적 관점(1977, 1979) 역시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 이웃, 학교의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자살 행동에 적용한다면, 개인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또래,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체계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탐색하

고자 한다. 특히 가족은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계 중 하나이며, 가족 결손 등의 가족 구성은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가족의 구성은 자살 행동에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영향을 주는 인과적이고 역동적인 직접요인이라기 보다는 만성적이고 지속적 환경 요인으로 다른 위험요인의 작용을 증가시키거나 완충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이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청소년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인지 탐색하였다. 이들의 통합적인 탐색은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개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자살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개인, 또래, 지역사회 위험 요인들이 농촌 지역 청소년의 자살 행동과 실제 관련성을 보이는가? 셋째, 가족의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의 가족 구성이 자살 행동과 위험 요인들과의 관계를 가중시키거나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II.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문제 탐색에 기초가 되는 관련 선행 연구들을 가족요인, 또래 및 지역사회, 자살행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가족 요인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다. 가정은 급속한 사회변화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성장의 요람이며,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가족 구성은 약화되고 있다(김혜영, 김영희, 2003). 현대의 가정은 다양한 이유로 구성원의 결손을 겪고 있다. 구조적 결손이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형태의 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사망, 수형, 이혼 등으로 부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박재산, 이미순, 문재우, 2011). 가족 구조의 해체는 청소년들이 겪는 다른 부정적 생활 사건에 비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며,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Amato & Keith, 1991).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의 약 50%는 해체 가족(이혼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Allberg, 1990), 가족 구성원의 결손이 자살의 위험요인이라는 결과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Brent et al., 1993, 1994; Gould, Fisher, Parides, Flory & Shaffer, 1996). Wagner, Cole과 Schwartzman(1995)은 부모간의 불화가 별거와 이혼 그리고 가족 결손으로 이어져서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Schmidt, Müller, Dettmeyer와 Madea(2002) 역시 청소년의 자살에 있어서 가족 결손이 다른 급정적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만성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하였다. 가족 관계의 붕괴는 소속감을 좌절시키고 고통스러운 심리상태를 유발함으로써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은 자살의 위험 요인뿐 아니라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한 예로 부모와의 연대감,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 자살의 보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vetaz, Ireland & Blum, 2000). 형제자매 역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형제는 청소년의 삶에서 종종 양육자, 교사, 친구로 어느 정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결손, 부모의 학대, 방임과 같은 부정적 가정환경의 청소년의 형제자매 유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mpton, Armistead, Wiersen & Forehand, 1991). 그 이유는 안정적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 비해 불안정한 가족 환경에 처한 청소년의 경우 형제자매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작용하고, 결핍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Caya & Liem, 1998). 또한 형제와의 연대는 또래들의 무시나 거부를 받을 때 아동이 보이는 불안이나 적응 문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dy & Murry, 2001). 그러나 형제자매가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 보호요인이란 단지 위험요인이 부재하다는 것을 넘어서 위험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의 유무는 청소년의 자살 사고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서미순, 2005).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한 단일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가 불안정한 가족 환경 내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요약하면 가족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와 같은 가족 구성은 청소년 자살과 유의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 기제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요인이 다른 위험 요인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2. 또래 및 지역사회

최근 청소년기의 자살의 발달적 경로에 있어서 또래의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King & Merchant, 2008). 특히 또래 간의 따돌림과 폭력 피해는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조윤숙, 이정남, 2010).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살 사고가 높다는 것은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진혜민, 2013). 더불어 학교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2.9배, 학교폭력 가, 피해 중복경험이 있는 학생은 7.1배 자살 사고가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2013).

한편 자살 행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품행 문제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으며, 품행장애 및 반사회적 행동은 청소년 자살의 위험성을 3-6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beck & Allgulander, 1990). 반면 사회적 요인으로서 또래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래의 가출, 음주 등의 위험 행동을 하는 또래 집단은 청소년의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김인경, 김은정, 정태연, 2001; 박현선, 이상균, 2008; 윤혜미, 남영옥, 2007; Agnew, 2001),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을 유발한다는 면에서 자살 행동의 직간접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옥임, 정옥분,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또래의 일탈행동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한편 청소년을 둘러싼 이웃과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체계이다(Bronfenbrenner, 1979). 한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존감은 거주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보고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바 있다(하태정, 2012). 반면 지역사회 환경과 자살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다 확장된 외부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 유해 환경을 포함하였으며, 자살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탐색하였다.

3. 자살행동

일반적으로 자살 행동은 덜 심각한 형태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자살 사망의 연속적인 차원으로 정의된다(Sveticic, 2012).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자살 생각을 가진 사람의 34%가 자살 계획을 세우며, 계획을 세운 사람의 72%가 자살 시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ler, Borges & Walters, 1999). 자살 사고에서 시작하여 자살 사망에 이르는 비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1:100에서 1:2000의 넓은 범위로 추정되고 있다(Gunnell, Harbord & Singleton, 2004). 자살 계획과 자살 시도는 자살 사고에 비해 자살 행동의 연속적 차원에서 보다 자살 사망에 근접한 위험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수정, 문성미, 이지미, 연규진,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소년 관련 자살 연구는 자살 시도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부분 자살 사고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강희양, 양경화, 2013).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위험요인이 높은 행동 변수에 주목하여 표적화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행동을 보다 직접적,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자살 계획과 자살 시도를 합쳐서 자살 행동으로 포함하였다.

특히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여건이 확보된 경우 도시로 유학이나 이주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농촌 지역사회에 남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김경준, 오해섭, 김진모, 최금해, 2005). 또한 가족이 도시지역에서 생활하다가 가정 해체에 놓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자녀를 농촌에 거주하는 조부모에게 맡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매년 농촌지역의 조손가정 비율이 높아지는 등 농촌 지역의 가족구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천미영, 김희정, 2011). 또한 청소년의 삶에서 우울감이나 학교 폭력, 가족 갈등, 다양한 피해와 가해 경험 등은 서구권에서는 자살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국내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증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나 형제자매와 같은 청소년의 가족 환경적 요인은 가족 해체가 극심한 농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한 요인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청소년 자살 위험요인을 농촌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특히 농촌 지역 청소년에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족 구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군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1,590명 이었다. G군은 인구가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군 소재지이며, 전체 면적의 70.31%가 임야이다.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며, 노령 인구가 32%에 달하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통계청, 2015). 연구를 위해 G군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 전체인 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에 ‘청소년 실태조사’로 협조를 구하였으며, 이들 중 조사에 동의한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결과적으로 7개 학교에서 표본이 모집되어 전체 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모두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들 중 성실하게 응답한 1,13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청소년위기실태조사(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청소년을 대상의 기존 실태조사 문헌 및 위기평정척도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 지역사회 유해환경,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자살 행동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1) 가족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

현재 거주 가족을 묻는 문항을 통해 연구 대상의 가족을 구분하였으며, 부모 양쪽이 모두 있는 양부모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을 구조적 결손 범주에 포함하였다. 또한 형제 유무에 대한 응답 여부를 포함하였다.

2) 지역사회 유해환경

지역사회 유해환경 문항은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있다’,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유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3) 가족 구성원의 일탈행동

가족 구성원의 일탈행동은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가족 중 알콜 중독인 사람이 있다’,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62로 나타났다.

4) 친구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은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예: 일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일탈행동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다.

5)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는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다’의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는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돈이나 물건을 훔침, 금품갈취를 한 적이 있다’ 6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6) 우울감

본 연구에서 우울감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늘 슬프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7) 자살 행동

종속변수인 자살 행동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계획해 본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의 2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가족형태, 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구성(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자살 행동, 위험요인(우울감, 지역사회,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성(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위험요인(우울감, 지역사회,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원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가족 결손 및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자살행동의 차이 분석

본 연구대상 중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8.8%인 21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한 부모 가정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10%에 해당하였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전체 79.9%인 910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 집단에 따라 자살 행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있는 청소년은 결손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 가족의 일탈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집단은 자살 행동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은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이 높고, 자살행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 결손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구조적 결손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더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가정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구조적 결손은 자살행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결손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형제자매 유무 집단 간 우울감이나 자살행동 등 다양한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139)

측정변인	구분	단위 n(%)
성별	남	508(44.6)
	여	631(53.4)
학교형태	중학교	565(49.6)
	인문계고등학교	439(38.5)
	비인문계 고등학교	135(11.9)

측정변인	구분	단위 <i>n</i> (%)
가족형태	양부모가정	925(81,2)
	조손가정	39(3,4)
	재혼가정	26(2,3)
	한부모 가정	114(10)
	친척	4(.4)
	기타	31(2,8)
구조적 결손 유무	있음	214(18,8)
	없음	925(81,2)
형제자매 유무	있음	910(79,9)
	없음	229(20,1)

표 2
구조적 결손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측정변인	구조적 결손 없음(<i>n</i> =925)	구조적 결손 있음(<i>n</i> =214)	<i>t</i> 값
	<i>M</i> (<i>SD</i>)	<i>M</i> (<i>SD</i>)	
자살 행동	.14(0,70)	.23(0,89)	1,37
우울감	2,91(2,91)	3,99(3,99)	4,60***
지역사회 유해환경	1,53(1,96)	1,70(2,23)	1,00
가족의 일탈 행동	.16(0,49)	.36(0,96)	2,82**
친구의 일탈 행동	.40(0,90)	.52(1,19)	1,43
학교폭력 피해	.28(1,27)	.42(1,82)	1,03
학교폭력 가해	.24(1,25)	.46(2,12)	1,50

p*< .01, *p*< .001

표 3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측정변인	형제자매 없음(n=229)	형제자매 있음(n=910)	t 값
	M(SD)	M(SD)	
자살 행동	.28(1.11)	.12(.62)	2.09*
우울감	3.52(3.28)	3.01(3.08)	2.21*
지역사회 유해환경	1.66(2.15)	1.54(1.97)	.78
가족의 일탈행동	.18(.77)	.20(.57)	.22
친구의 일탈행동	.48(1.20)	.41(.89)	.79
학교폭력 피해	.36(1.79)	.29(1.27)	.64
학교폭력 가해	.28(1.69)	.28(1.39)	.05

* $p < .05$

2. 자살 행동과 다양한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변수는 우울감, 지역사회 유해환경,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 폭력가해와 피해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과 가족 결손은 자살행동과 유의한 상관관찰되지 않았다.

표 4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 자살 행동	1									
2. 성별	-.04	1								
3. 형제	-.09**	.04	1							
4. 구조적 결손	.06	-.02	-.36**	1						
5. 우울감	.30**	.07*	-.07*	.14**	1					

	1	2	3	4	5	6	7	8	9	10
6. 지역사회 유해환경	.23**	.02	-.03	.03	.41**	1				
7. 가족의 일탈행동	.36**	-.07*	.01	.12**	.26**	.22**	1			
8. 친구의 일탈행동	.35**	-.14**	-.03	.05	.15**	.26**	.34**	1		
9. 학교폭력 피해	.40**	-.10*	-.02	.04	.20**	.18**	.34**	.23**	1	
10. 학교폭력 가해	.35**	-.14**	.00	.06*	.13**	.21**	.35**	.31**	.59**	1

* $p < .05$, ** $p < .01$

3. 위험요인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형제자매의 상호작용효과

마지막으로 상관 분석 및 집단 차이 분석에서 자살행동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낸 형제자매 유무가 자살 위험요인들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 이전에 앞선 상관 분석 결과 종속변인인 자살행동과 예언변인들과의 상관보다 예언변인들 간 높은 상관 값이 다수 있어 다중 공선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인의 VIF값이 1.05~1.88로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로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우울감,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지역사회 유해환경,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형제자매 유무를 개별적으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형제자매 유무의 각 변수의 이원 상호작용 항을 각각 따로 투입하여 독립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조절회귀분석에서 다중 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각 변인들은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 항이 유의할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 차이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서영석, 2010). 이상의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자살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학교폭력 피해($\beta = .20$, $p < .001$), 친구의 일탈행동($\beta = .19$, $p < .001$), 우울감($\beta = .17$, $p < .001$), 가족의 일탈행동($\beta = .15$, $p < .001$), 학교 폭력 가해($\beta = .11$, $p < .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 유무 역시 자살 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은 보였다($\beta = -.07$, $p < .01$). 반면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다

른 요인과 독립적으로 자살 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형제자매 유무는 우울감,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지역사회 유해환경, 학교폭력 피해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3~2.4%의 추가설명력이 있었다. 그림 1과 그림 2에는 상대적으로 추가 설명력이 크게 나타난 변수인 가족의 일탈행동과 친구의 일탈행동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형제자매의 조절효과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는 주효과는 있었으나, 형제자매 유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효과는 없었다. 반면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주효과는 없었던 반면 형제자매 유무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자살 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형제자매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회귀 분석 결과

단계	변인	B	SE	β	R ²	ΔR^2
1	(상수)	.255	.042		.29***	
	우울감	.040	.007	.17***		
	지역사회 유해환경	.005	.011	.01		
	가족의 일탈행동	.179	.035	.15***		
	친구의 일탈행동	.147	.021	.19***		
	학교폭력 피해	.107	.017	.20***		
	학교폭력 가해	.051	.017	.109**		
	형제자매 유무	-.124	.047	-.07**		
2	(상수)	.242	.042			
	우울감 x 형제자매 유무	-.040	.015	-.15**	.30***	.005**
	지역사회 x 형제자매 유무	-.064	.022	-.15**	.30***	.005**
	가족의 일탈행동 x 형제자매 유무	-.414	.066	-.28***	.32***	.024***
	친구의 일탈행동 x 형제자매 유무	-.165	.042	-.18***	.30***	.010***
	학교폭력 피해 x 형제자매 유무	.060	.029	.09*	.29***	.003*
	학교폭력 가해 x 형제자매 유무	-.043	.030	-.07	.29***	.00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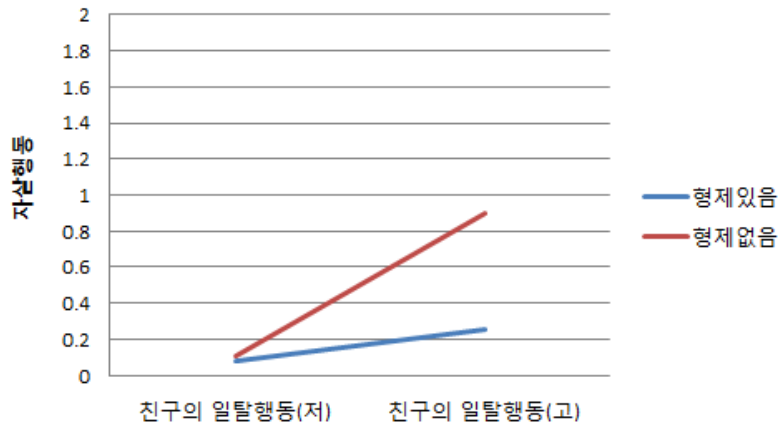


그림 1.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형제자매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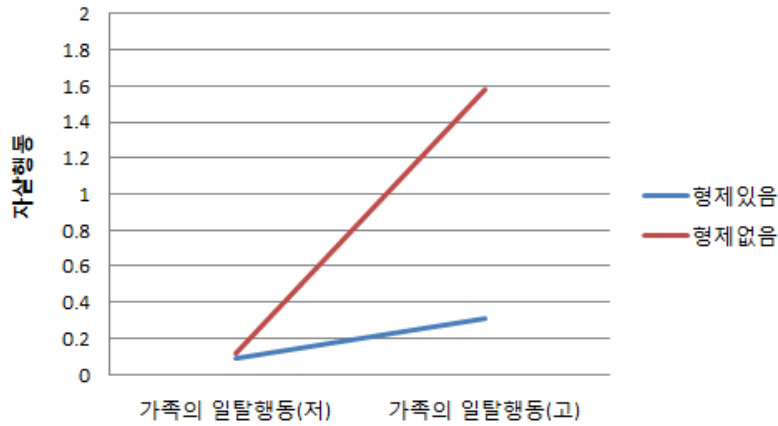


그림 2. 가족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형제자매의 조절효과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가족 결손,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자살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요인이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또한 이들 위험 요인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 구성(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이 조절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18.8%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과 조손 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은 약 13.4%로 가장 빈번하였는데, 이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 9.2%보다 높은 수치로(통계청, 2011), 본 연구 대상들의 거주 지역에서 가족 결손이 빈번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 대상 중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은 20.1%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직접적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결손이 청소년 자살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Brent et al., 1993; Gould et al., 1998). 선행 연구의 경우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사회 청소년 표본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족 결손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심각한 자살 위험군에서 중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자살 행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우울감 및 가족의 일탈행동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냈는데, 이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더 열악한 가정환경과 관련 있으며, 우울감을 증폭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은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자살 행동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자매의 존재와 자살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선행 연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서미순, 2005). 선행 연구의 경우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사고를 측정하는데 반해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 지역 청소년으로, 자살 계획과 시도를 포함한 행동이 주요 변인이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형제자매가 결핍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줌으로써 유해 환경의 영향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며(Caya & Liem, 1998),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보다 심각도가 높은 자살 행동에 대한 보호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이러한 양상이 농촌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전체 지역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자살 행동의 보다 심각한 행동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 또래, 가족, 지역사회 위험요인과 자살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살 행동과 일관되게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개인 변인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입이 전반적인 청소년 자살 행동의 예방에 있어서 우선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학교 폭력 피해와 가해는 모두 자살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개입과 학교 환경 변화가 자살 행동 감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알콜 문제나 범죄와 같은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 행동 역시 청소년의 자살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 중에 알콜 중독, 가출, 수형 등 반사회 일탈행위를 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자살 행동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민정, 2011;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와 청소년의 자살행동 간의 관련성은 청소년기가 또래집단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위험행동을 촉발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인경 외, 2001; 박현선, 이상균, 2008; 윤혜미, 남영옥, 2007; Agnew, 2001).

지역사회 유해 환경은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2003)에 따르면 지역사회 유해성이 클수록 청소년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환경이 일반 적응 뿐 아니라 보다 심각한 수준의 자살 행동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로 향후 환경 요인에 대한 관심과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유무는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우울감, 지역사회 유해환경,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은 가족이나 친구의 일탈행동이나 지역사회 유해 환경이 자살 행동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절 효과의 크기는 가족의 일탈행동과 친구의 일탈행동이 가장 큰 편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특히 주변 사람의 일탈행동에 노출된 청소년에 있어서 형제의 존재가 완충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농촌지역 청소년에게 형제자매가 또래집단 안에서 경험하는 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살 사고에 비해 심각도가 높은 자살 계획과 자살 시도를 자살 행동으로 통합하여 평가하였으나 두 가지 현상의 개별적 속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심각한 자살 사망을 포함하지 못하여 자살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1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측정하지 않고 구조적 측면만을 포함했으므로, 가족 결손의 포괄적 측면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가족의 결손이나 형제자매 유무와 같은 구조적 변인만을 포함하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나 관계의 질과 같은 변인을 포함하지 않아서, 가족의 주요한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횡단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파악한 위험요인이 실제 자살 행동을 예측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농촌지역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실증하였고, 형제자매 유무가 청소년을 둘러싼 부정적 외부 요인에 대한 보호 요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감과 같은 개인 요인 뿐 아니라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 폭력 피해와 가해와 같은 또래 요인, 가족의 일탈 행동과 같은 가족 요인,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청소년 자살행동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살이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회 현상임을 감안할 때,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농촌지역 연구에 기반한 위험 요인에 표적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자살예방개입의 수립과 시행이 청소년 자살 감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호인, 김란, 서은희, 노법래, 홍현주, 권용실 (2014). 학교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 장점과 제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신경정신의학**, 53(1), 8-14.
- 강희양, 양경화 (2013).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우울과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1), 539-554.
- 구경미, 정현희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동적사고,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구조적관계와 성별에 따른 경로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13(3), 1295-1314.
- 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2013). 한국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 충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3(9), 236-247.
- 김경준, 오해섭, 김진모, 최금해 (2005). **농어촌 청소년 복지정책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청소년육성 재단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한국청소년 개발원.
- 김민경 (2011).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 생각의 관계: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403-429.
- 김인경, 김은정, 정태연 (2001).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45-257.
- 김재엽, 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7(5), 121-149.
- 김재엽, 정윤경, 이진석 (2009). 가정내 자녀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19-144.
- 김현식, 김두섭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 김혜영, 김영희 (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생활과학연구논총**, 6(2), 125-141.
- 노자은, 김현주 (2013). 청소년의 자살 충동에 대한 가족 영향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1-21.
-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가출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5-34.
- 박재산, 이미순, 문재우 (2011). 가족의 기능적 결손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

- 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4(2), 199-209.
- 박현선, 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자아 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박현숙 (2007). 청소년의 자살사고, 폭력행동 경로모형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7(6), 835-843.
- 서미순 (2005).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 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육성필 (2013). 부부 친밀감에 따른 배우자 사별노인의 사별스트레스가 우울 및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학회**, 26(4), 935-951.
- 윤혜미, 남영옥 (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 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 이만석, 김명식, 권호인 (2015). 심리적 부검을 통한 전북지역 자살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119-130.
- 이민숙 (2005). **노인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문성미, 이지미, 연규진 (2015). 우울과 자살성의 관계: 자살 허용적 태도와 지인 자살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4), 23-43.
- 이은숙 (2007).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 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대한 간호학회지**, 37(4), 576-585.
- 전신현 (2003).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03-R24).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운숙, 이경남 (2010).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 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8), 27-37.
- 진혜민 (2013).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천미영, 김희정 (2011). 조손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 학회**, 19(3), 159-182.

-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정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6-740.
- 최옥임, 정옥분 (2003).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정보처리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10(1), 71-89.
- 하태정 (2012). **빈곤이 지역사회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 (2013).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연구보고 13-R0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gnew, R. (2001). *Juvenile delinquency: Causes and control*. Los Angeles: Roxbury.
- Allberg, W. R. (1990). Understanding adolescent suicide: Correlates i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School Counselor*, 37(5), 343-350.
- Allebeck, P., & Allgulander, C. (1990). Suicide among young men: Psychiatric illness, deviant behaviour and substance abus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1(6), 565-570.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Friend, A., Roth, C. et al. (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3), 521-529.
- Brent, D. A., Johnson, B. A., Perper, J. A., Connolly, J., Bridge, J., Bartle, S. et al. (1994).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traits, impulsive violence, and completed suicide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8), 1080-1086.
- Brody, G. H., & Murry, V. M. (2001). Sibling socialization of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996-1008.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d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ffaerts, R., Demyttenaere, K., Borges, G., Haro, J. M., Chiu, W. T., Hwang, I. et al. (2010). Childhood adversities as risk factors for onset and persistence of suicidal behaviou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7(1), 20-27.
- Caya, M. L., & Liem, J. H. (1998). The role of sibling support in high-conflict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2), 327-333.
- Cicchetti, D., & Rogosch, F. A. (1996). Equifinality and multifinality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597-600.
- De Wilde, E. J., Kienhorst, I. C., Diekstra, R. F., & Wolters, W. H.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nd life event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1), 45-51.
- Fortune, S., Stewart, A., Yadav, V., & Hawton, K. (2007). Suicide in adolescents: Using life charts to understand the suicidal proces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0(1-3), 199-210.
- Gould, M. S., Fisher, P., Parides, M., Flory, M., & Shaffer, D. (1996). Psychosocial risk factors of child and adolescent completed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12), 1155-1162.
- Hawton, K., Saunders, K. E. A., & O'Connor, R. C. (2012). Self-harm and suicide in adolescents. *Lancet*, 379, 2373-2382.
- Kempton, T., Armistead, L., Wierson, M., & Forehand, R. (1991). Presence of a sibling as a potential buffer following parental divorce: An examination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4), 434-438.
- Kessler, R. C., Borges, G., & Walter, E. E. (1999).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7), 617-626.
- Nock, M. K. (2014). *The oxford handbook of suicide and self inj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feffer, C. R. (2002). Suicide in mood disordered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1, 639-647.
- Russell, D. E., & Bolen, R. M. (2000). *The epidemic of rape and child sexual abuse in the United States*. Thousand oaks, CA: Sage.
- Rihmer, Z. (2007). Suicide risk in mood disorder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0(1), 17-22.
- Schmidt, P., Müller, R., Dettmeyer, R., & Madea, B. (2002). Suicide in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27(3), 161-167.
- Svetaz, M. V., Ireland, M., & Blum, R. (2000).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emotional well-being: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5), 340-348.
- Sveticic, J., & De Leo, D. (2012). The hypothesis of a continuum in suicidality: A discussion on its validity and practical implications. *Mental Illness*, 4(e15), 73-78.
- Xavier, C., Law, F., Tobias, A., & Hawton, K. (1998). Child sexual abuse in women who take overdoses. I. A study of prevalence and severity. *Archive of Suicide Research*, 4(4), 291-306.
- Wagner, B. M., Cole, R. E., & Schwartzman, P. (1995).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e attempts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youth.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5(3), 358-372.

ABSTRACT

Risk factors affecting suicidal behaviors of adolescents in rural areas

Jung, Jaehun* · Kwon, Hoin**

Adolescent suicide continues to be a serious public concern. The issue of broken families in rural areas has come to the fore in recent years.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risk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in rural areas. We also looked into whether family composition (structural deficit, presence of siblings)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behaviors and risk factors. The participants were 1,13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G-gun and we investigated their family composition, depression levels, harmful elements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school violence levels, deviant behaviors within the family and peer groups and suicidal behaviors.

Depression levels, school violence levels, deviant behaviors within the family and peer group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s. The presence of siblings regulated suicidal behavior through interaction with depression levels, harmful elements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school violence levels, deviant behaviors within the family and peer group and suicidal behavior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esence of siblings may perform a protective role in youth suicidal behaviors.

Key Words: suicidal behavior, family composition, broken families, sibling status, adolescents in rural areas

투고일: 2017. 2. 27, 심사일: 2017. 6. 9, 심사완료일: 2017. 6. 19

* Jeonju University

**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Jeonju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